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9만명 일자리 창출 효과”

서울역·세운상가·창신송인 등
가시적 성과 나타난 3곳 대상
파급효과로 인한 간접효과 커

구분	직접효과 (활성화 계획의 공공부문)			간접효과 (활성화 계획 외 민간부문)			계
	건설단계	운영단계	합계	건설단계	운영단계	합계	
서울역일대	1,222	856	2,078	30,146	22,004(민간개발*)	52,150	54,228
세운상가	988	1,720	2,708	12,131	18,910(민간개발) 325(자율갱신**)	31,366	34,074
창신송인	177	169	346	-	45(자율갱신)	45	391
합계	2,387	2,745	5,132	42,277	41,284	83,561	88,693

표) *민간개발: 도시재생지역 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등 민간개발사업 추진지역 중 사업계획 내용을 반영해 일자리 창출효과 추정. ** 자율갱신: 도시재생지역 지정시점('14.) 대비현재('17.) 시점에서 GIS 공간데이터 분석을 통해 건축물 연면적 증감, 사업체별 종사자 등의 증감된 고용인원을 비교해 신규 고용 인원수를 파악. #건설단계: 일시적일자리. 운영단계: 지속적일자리.



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일자리는 물론 건설 후 운영·관리 단계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유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직접고용효과를 보면 건설단계의 ‘일시적’ 일자리(2387명)보다 건설 이후 운영단계에서 생겨나는 ‘지속적인’ 일자리(2745명)가 1.1배(358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실질적인 일자리 유발효과를 조사·분석한 사례는 이번이 국내 최초라고 설명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도시재생은 경제·사회·물리·환경적 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21세기형 도시관리방식으로, 저성장시대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도 이끌어내는 정책”이라며 “이번 시범연구에서는 물리적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했지만 주민과 공공 등 주체들 간의 협업에 따른 지역 활성화와 다양한 특화산업 유치에 따른 관광유발 효과 같은 비물리적인 부분까지 확대하면 일자리 유발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범중 기자 joker@metroseoul.co.kr

서울시가 서울역, 세운상가 등 도시재생 사업으로 약 8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시와 민간주도 개발로 인한 직접고용효과와 인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따른 파급효과까지 포함된 규모다.

서울시는 8일 연세대 산학협력단(책임자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에 의뢰한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서울시의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곳 중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서울역 일대와 세운상가, 창신·송인이다.

서울역 일대와 세운상가는 ‘서울로 7017’과 ‘다시세운 프로젝트’ 1단계 사업은 지난해 5월과 9월 각각 마무리됐다. 창신과 송인은 수도권 지역 중 유일하게 정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지난해 말 마중물 사업이 대부분 완료됐다. 일부 앵커시설은 올해 초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번 연구는 서울시의 직접적인 예산 투

입을 통한 공공사업(계획·건설·운영·관리 등)으로 인한 ‘직접고용효과’ 외에도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민간주도개발과 인근 지역 상권 활성화를 포함한 ‘간접고용효과’도 종합 분석한 결과라고 시는 밝혔다.

이같은 기준으로 볼 때 직접고용효과는 5132명, 간접고용효과는 8만356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고용 효과는 서울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공사하고, 사람을 고용해 발생한 효과를 뜻한다. 서울로 7017 운영인력(67명), 세운상가 메이커스

큐브 입주기업(50명), 백남준기념관 운영인력(16명) 등이다.

시는 공공의 마중물사업으로 인한 직접효과보다 민간개발과 인근 지역으로의 파급효과로 인한 간접효과가 16배 이상 컸다고 설명했다. 간접고용은 도시재생 효과가 인근 지역으로 파급되며 민간개발을 촉진하고, 상권이 살아나 나타나는 효과다.

이들 3개 지역의 고용창출효과를 투자비 10억원 당 창출되는 일자리 수로 환산

한 결과, 직접고용효과(공공 마중물사업)는 21.38명, 간접고용효과(인근파급)는 19.38명이었다.

김갑성 교수는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토목건축 위주의 주택개발·재건축 사업에 10억원을 투자했을 때 고용창출효과가 8.7명(2016년 한국은행 고용유발계수 기준)이었다”며 “이를 토대로 분석하면 도시재생의 고용유발효과는 21명 이상으로 2.5배 이상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재생은 건설단계

흡연 직장인 84% “건강위해 새해 금연!”

잡코리아 ‘금연 계획’ 설문
‘담뱃값 부담’ 47% 뒤이어

흡연 직장인 84% ‘새해 금연 계획’
※ 흡연 직장인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자료제공: 잡코리아



비~10개비 미만(29.6%), ‘5개비 미만(26.5%)’ 등으로 다양했다.

‘중간 흡연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는지’ 묻자,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32.3%가 ‘그렇다’고 답했다. 실제로 이들이 주로 담배를 피우는 장소는 ‘흡연 지정 구역(52.9%)’, ‘집, 회사 내의 계단이나 옥상(37.4%)’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잡코리아는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직장인들의 의견도 조사했다.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70.7%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답변은 비흡연 직장인(62.7%)에 비해 흡연 직장인(77.9%)이 높게 나타났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대대선 찬성한다는 입장이 주를 이뤘지만, 흡연 직장인 그룹에서 반대한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흡연 직장인(15.8%) 그룹이 비흡연 직장인(2.7%) 그룹보다 5배 이상 많았다. 반대 입장을 밝힌 직장인들은 ‘개인공간(내 집)까지 관여하는 건 너무 심한 처사 같아서(64.0%)’, ‘실생활에서 개정안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26.7%)’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과반수에 해당 하는 찬성 입장은 ‘중간 흡연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해서(61.4%)’, ‘가족, 지인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적어질 것 같아서(59.1%)’ 등을 해당 개정안에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 꼽았다. /한용수 기자 hys@

흡연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새해를 맞아 금연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금연을 결심한 이유는 건강과 비용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새해를 맞아 직장인 782명을 대상으로 ‘금연 계획’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그 결과 응답자 중 52.7%가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금연 계획을 묻자, 84.2%가 금연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금연을 계획하는 이유는 ‘건강관리(80.7%)’, ‘부담스러운 담뱃값(47.0%)’, ‘흡연자가 환염 방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18.4%)’ 등이었다.

담배를 끊는 방법으로는 ‘하루에 피는 담배 개수 줄여가기(55.6%)’, ‘운동하기(28.5%)’, ‘병원, 금연치료 전문가 도움 받기(20.2%)’ 등의 방법이 나왔다.

흡연자들은 한 달 평균 10만8천원을 흡연에 사용하고 있었고, 하루 평균 흡연량은 ‘10개비~20개비 미만(33.5%)’, ‘5개

“중동여행 ‘메르스’ 주의하세요”

서울시 여행후 발열 등 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전 1339에 신고부터

속하게 증상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국내 메르스 의심환자가 전국적으로 220명이 발생(전원 메르스 음성)했고, 이중 64명(29%)이 서울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중 36%(23명)는 1339로 먼저 신고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해 병원으로부터 신고된 사례였다.

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메르스 유입을 막기 위해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낙타 접촉과 낙타 부산물 섭취 삼가 ▲진료 목적 외 현지 병원 방문 자제(마스크 착용)

서울시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메르스 감염 주의를 요청했다.

시는 중동지역 방문 후 2주 이내에 발열(37.5℃ 이상)과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 전에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먼저 신고하라고 8일 당부했다.

1339로 신고하면 거주지 보건소와 연결해 기초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보다 신

용)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삼가 ▲발열, 기침 등 증상으로 현지병원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지난해 국외 메르스 환자는 총 248명 발생했다. 사우디아라비아 236명, 아랍에미리트 6명, 카타르 3명, 오만 3명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낙타접촉 등에 의한 1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국외에서 메르스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중동지역 방문 중에는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여행 후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기 전 반드시 1339에 먼저 신고해 보건소를 통해 조치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이범중 기자



제2여객터미널 이용 셔틀버스 안내문

오는 1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 개장을 앞두고 8일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정류장에 출입국 이용 터미널이 다른 여행객을 위한 셔틀버스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우리 구청 소식

▲노원구, 이마트에 ‘월계행복발전소’ 조성

서울 노원구는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증진하기 위해 이마트와 함께 ‘월계행복발전소’를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 노원구 마들로3길 15 이마트 월계점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014.29㎡ 규모로 들어서는 월계행복발전소는 다음달에 개관 예정이다. 이마트는 발전소 건축과 인테리어 공사, 도서와 내부비품 등을 지원한다.

▲마포구 ‘2017년 기준 사업체 조사’ 요원 모집

서울 마포구는 오는 16일까지 구정 정책과 경영, 학술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 조사요원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목적은 관내 모든 사업체 분포와 고용 구조 파악이다. 조사 결과는 정책수립이나 평가, 기업 경영계획의 수립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종로구, 새해 희망 담아 ‘2018 신년인사회’ 개최

서울 종로구가 9일 오후 2시 자하문로 AW컨벤션센터 ‘2018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종로구는 각계각층에서 지역 발전에 힘쓰고 있는 주민 등 약 10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해 새해 덕담을 나눌 예정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 건설을 위한 계획과 당부를 전할 예정이다. /이범중 기자

